

# 雲門

불기 2559년

봄호

통권 제132호

雲門僧伽大學





## 구름문을 펼치다

- ※ 표지부터 달라진 운문제 운문지 받을 때면 설렙니다. 한 페이지 소중하게 넘기면서 읽어 내려갑니다. 내용도 알차고요, 운문지가 나오면 주변 분들에게 늘 챙겨드립니다. 기뻐하시는 모습, 함께 기쁩니다. / 대교과 주형
- ※ 육화당 설현당 사이 매화꽃이 팝콘처럼 폼터요. 신입생스님들 매화꽃도 보면서 신심 있게 살아봅시다! 사교 엄마반이 된 우리 도반스님들 위로는 받들고 아래로는 잘 살피면서 살아 보아요. / 사교과 중수
- ※ 목련꽃이 하얗게 하나, 둘씩 툭툭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운문사에서 봄 한철이 목련꽃이 터지듯이 즐거운 봄이 될 것 같아요. / 사교과 선경
- ※ 매화 가득한 운문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은 지치고 힘들겠지만, '치문' 이기에 견뎌낼 수 있는 시간인 듯합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 사집과 명진
- ※ 부처님께서 잘 보호된 마음이 참된 행복, 열반으로 이끈다고 하셨지요. 힘들수록 스스로에게 자애의 마음을 보내시고 마음 잘 챙겨 행복하길 기도할게요. / 사집과 혜정
- ※ 온 도량에 매화향기 그윽합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힘들게 올라오는 새싹을 보며 불심의 종자를 가꾸어 봅시다. / 사집과 영운
- ※ Wellcome to our Unmunsa family and wish you all the best! / 사집과 휴정

# 雲門

## 목차



- |                   |                             |
|-------------------|-----------------------------|
| 02 호거산 운문사        | 구름문을 펼치다                    |
| 04 죽림헌            | 참다운 인육 명성                   |
| 06 풍경소리           | 심명心明 수안                     |
| 08 교수논단           | 『유마경』 이야기 ② 은광              |
| 12 운문, 운문인        | 꽃보다 스님 편집부                  |
| 14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 매우기사梅雨寄思 안범                 |
| 16 想-하나           | 불 해운                        |
| 18 학인논단           | 고대인도 사상사思想史에서 본 붓다의 성도 ② 부진 |
| 22 방부소감           | 물속에 우유가 스며들 듯 자안            |
| 24 답소             | 불,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아름다운 계절 김현일  |
| 27 깨달음으로 가는 길     | 달라이라마 아침 기도문 편집부            |
| 28 차례법문           | 치암종회 금일참회 합니다 도우            |
| 30 특별기고           |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임순례          |
| 34 想-둘            | Vegan 도훈                    |
| 36 수행의 두레박 하나     | 신심信心 현담                     |
| 38 수행의 두레박 둘      | 절에 오니 절로 부처님 미소가 지어집니다 혜도   |
| 40 사찰탐방           | 천불천탑 운주사 원일                 |
| 44 자유기고           | 내면의 소리 우보                   |
| 46 이 한 권의 책       | 티베트 사자의 서 동석                |
| 48 운문논평           | 이교득락 자리이타 편집부               |
| 50 운문소식           |                             |
| 51 등불             |                             |

## 참다운 인욕

명성 / 운문사승가대학원 원장



대중스님들 안녕하십니까? 산천초목이 온통 꽃과 향기로 가득한 이 봄철은 신입생 스님들이 방부를 들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에 ‘망용상덕 능인장고望龍象德 能忍長苦 기사자좌 영배육락 期獅子座 永背欲樂’ - 용상의 덕을 바라서 능히 긴 고통을 참고, 사자좌를 기약해서 영원히 육락을 등질지니라. - 이라는 말이 있지요.

사찰 큰방에는 용상방龍象榜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부를 들이면 자기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이 되고, 그 철에 맡아야 할 소임이 부여되는 것이지요. 우리 운문사 큰방인 청풍료에도 용상방이 걸려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용이나 코끼리, 사자 등은 바로 부처님을 상징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若無忍行 萬行不成이라. 부처님처럼 훌륭한 수행자가 되려면 인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선가귀감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인욕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중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인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요즘은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인터넷으로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운문사라는 대중 속에서 공부를 하는 것일까요? 어찌하여 은사스님이나 선배스님들이 강원에 가야한다고 말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책이나 인터넷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제멋대로 게으름을 피우려는 욕구와 욕심은 영원히 버리고, 인욕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초심자들은 익혀야 하고,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인욕을 수행하고 자기의 그릇을 크고 견고하게 만드는 수행 장소는 대중보다 좋은 곳은 없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취향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 각처에서 모여 한 곳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시비비가 늘 있기 마련이지요. 바로 그러할 때 옹고 그름에 휘말리지 말고, 상대방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거나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관세음보살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생각하면 대부분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인욕이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참을 것이 없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幻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일체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진 것은 모두 꿈과 같고 물거품 같이 실체가 없음을 계속 깊이 사유하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생각을 붙들고 본인 스스로 분별심을 내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되어 저절로 참회를 하게 되고, 마음이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학인스님들께서는 잔재주를 부리는 여우나 원숭이와 같은 수행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법의 동량이 되는 큰 재목이 되고, 불교의 앞날을 책임지는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할까요? 하루아침에 훌륭한 스님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순간이 모여 훌륭한 인격이 되고, 하루하루의 수행이 쌓여 보살의 단계에 오르는 것입니다. 평상심平常心이 道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운문사에서 생활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수행이 되고, 깨달음으로 가는 밀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새로 들어온 치문반 스님들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지만 할 것입니다. 선배 스님들은 치문반 스님들이 대중생활을 잘 익힐 수 있도록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또 후배스님들은 항상 下心하고 총명하게 행동하여 서로 화합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한철이 되기를 바랍니다. ☸



여기 뿐 마음은 꽃씨 되어

멀리 까지 날아 갑니다



## 심명心明

길 위에서 태어나고  
길에서 成佛하사  
길 위에서 說法하시다  
길에서 반열반에 드신  
석가모니 부처님

병든 이에게 어진 의사가 되고  
길 잃은 이에게 바른길 가르치고  
어두운 밤중에는 光明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黃金을 얻게 하시다

山神님과 龍王님 하느님들  
마음 비움 공부하는 이들 돌보시니

오..  
善財라 ॐ

문수원 수안

문수원

## 『유마경』 이야기 ②

은광 / 운문사승가대학 강사

### 목 차

- I. 머리말
- II. 『유마경』 이야기
  - 1. 유마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 2. 청정한 불국토의 모습
  - 3. 위풍당당 유마거사는 왜 병이 든 것일까
- III. 『유마경』에 나타난 마법의 세계
  - 1. 불가사의한 마법세계로의 초대
  - 2. 『유마경』이 제시하는 수행법
- IV. 맺음말

### 3. 위풍당당 유마거사는 왜 병이 든 것일까?

#### 1) 유마에게 갈 수 없는 사연들

유마거사는 무동無動여래와 같이 묘희妙喜세계에 계신 분이었는데, 중생들을 제도하고 성숙시키기 위해 방편으로 바이살리성에 살고 있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아무리 써도 고갈되지

않는 재산을 가진 거부장자이고, 셀 수 없는 부처님께 공양한 선행의 공덕으로 무생법인을 성취하였으며, 지혜와 방편바라밀을 통달하여 신통이 자유자재한 인물이다. 그는 누구와도 친구가 되는 유머와 따뜻함을 소유한 사람으로 모두의 공경을 받고 있었다. 그러한 공덕을 두루 갖춘 유마거사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왕을 비롯하여 고관대작들과 기업인, 정치인 등 사회적 명망을 갖춘 온갖 유명인사들 수천 명이 문병을 가기에 이른다. 이에 부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유마거사에게 병문안 다녀올 것을 권유하셨다. 그러나 사리불을 위시하여 10대 제자들과 보살들 누구도 유마거사를 감당할 힘이 없는 상태다.

유마거사의 탁월함을 유감없이 보이고 있는 「제자품」에서는 대승과 소승을 햇빛과 반딧불, 큰 바다와 소 발자국, 수미산과 겨자씨, 대사자후와 들 짐승의 울음소리로 대비해서 말하고 있다.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 당시 수행풍토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수행의 의미를 자각할 것을 간절히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논외의 제일 가전연이 무상無常, 고혹, 공空, 무아無我에 대하여 설하는 것을 듣고, 생멸하고 분별하는 마음으로 실상법實相法을 설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일체 만법이 궁극적으로 변하지 않는 고정적 실체가 없음을 아는 것이空的 진정한 의미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또 고요한 곳에서 단정히 앉아 좌선하고 있는 사리불에게 그것은 좌선이 아니라고 경책한다. 그럼 유마거사가 생각하는 좌선이란 무엇인가? 무릇 좌선이란 형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난한 마을에서 걸식하는 가섭에게는 자비심이 있지만, 마음이 넓지 못하여 부잣집을 제외시키는 것이니 일체가 모두 평등하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걸식하고, 중생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걸식해야 하며, 또한 걸식할 때 색·성·향·미·촉·법이 환幻인 줄 알고 걸식할 것을 당부한다. 한편, 마왕 파순이 일만 이천 명의 天女를 데리고 휘황찬란한 제석천왕의 모습으로 음악을 연주하며 지세보살에게 다가와 천너를 시종으로 받아줄 것을 부탁

한 일이 있었다. 이에 지세보살은 아름다운 여인들은 출가사문에게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거절을 한다. 그러나 유마거사는 마왕의 모든 천녀들을 기꺼이 기분 좋게 시종으로 맞이하여, 그들을 법으로 제도해서 하늘의 궁전으로 돌려보낸다.

여기에서 유마거사는 10대 제자로 대변되는 성문승聲聞乘들에게 욕망이란 과연 두려워해야 할 대상인가 하며, 욕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함께 과연 부처님의 정신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세속은 번거롭고 위험하고 그래서 멀리 떠나야 한다는 출가 중심의 편협함에 대해서 진정한 출가정신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이 그러했듯이 대승의 보살들도 번뇌와 모순과 욕망이 가득한 중생 곁을 떠난 일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10대 제자와 보살들 모두 유마거사에게 갈 수 없는 사연들이 이야기되고 드디어 문수사리가 유마거사를 방문하기로 최종 결정이 난다.

## 2)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문수사리가 유마거사에게 방문안을 간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있던 여러 보살들과 대제자들, 제석천왕, 범천왕, 사천왕들은 광대하고 탁월한 안목과 지혜를 가진 두 보살의 만남에 엄청난 기대감과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수천수만의 보살들은 문수사리와 함께 미묘한 법을 논하는 자리에 동참하기 위해 유마의 방 안으로 들어간다. 그토록 유명하고 신비로움이 가득한 조그마한 유마의 방은 전혀 커지거나 넓어지지도 않으면서 셀 수도 없이 많은 방문객을 수용하고도 남음이 있다.

문수사리는 먼저 유마거사에게 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물었다.

유마거사의 병의 원인은 결론적으로 대비심 때문이다. 마치 자식이 병들면 부모님도 병이 들고, 자식이 병이 나오면 부모님의 병도 낫는 것처럼 중생이 먼 과거부터 무명無明과 삶에 대한 갈애를 일으켜 장구한 세월 생사윤회를 하면서 병들어 있기

때문에 대승의 보살 유마거사는 중생에 대한 한량 없는 자비심으로 병이 든 것이다. 유마거사는 방편으로 '병'이라는 주제를 설정하여 대승의 정신을 일깨우려고 하고 있다.

중생이 아프는데 왜 내가 아픈 것일까. 중생이 아프는데 왜 유마거사가 아픈 것일까.

어떤 사람은 중생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생의 아픔과 자기의 삶은 완전 별개의 문제이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중생의 아픔을 공감하기는커녕 그들을 무시하고 착취하며 피해를 주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다. 왜 이와 같은 차이가 있는 것일까?

유마거사가 병이 들어 아픈 까닭이 대비심大悲心 때문이라면 무슨 이유로 우리는 그러한 간절하고 진실하고 광대한 자비심이 없는 것일까. 여기에서 대승불교 정신의 핵심이 지혜와 자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중생이 아프는데 내가 간절하게 아프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자비심뿐만 아니라 지혜와도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 진정한 자비심은 지혜를 바탕으로 일어난다. 세상에 치에 대한 이해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의 결과로 대 자비심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세세생생 원력으로 자비로운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자비심과 더불어 지혜가 밝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픔에 따뜻하게 공감하고 아파할 수 없는 것이다.

## III. 유마경에 나타난 마법의 세계

### 1. 불가사의한 마법세계로의 초대

부처님과 보살들에게는 불가사의한 해탈의 세계가 있다.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자재한 세계이다. 조그만 거자씨 안에 수미산이 들어가고 7

일을 1집으로 늘리기도 하고, 1집을 7일로 줄이기도 한다. 거자씨 안에 수미산이 들어가도 전혀 거자씨가 커진 일이 없고 수미산이 작아진 일도 없다. 유마거사가 신통력을 나타내면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보석들로 디자인 된 화려하고 아름다운 삼만 이천 개의 사자좌獅子座가 타방세계에서 유마의 방으로 찰나 사이에 보내진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수많은 대중들에게 향기로 된 음식이 빛의 속도로 항적세계로부터 배달되기도 한다. 또 한 세계가 통째로 공간이동이 가능하여 그 세계에 의지해 살고 있는 산과 바다, 생명체들이 너무도 순식간에 다른 세계로 날아가기도 한다. 마치 가볍게 공을 던지듯 말이다.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 재산, 아무리 많은 사람이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음식 등등 이러한 마법이 유마의 방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신비로운, 가히 사랑할 수 없는 부처님의 세계를 유마거사는 종횡무진으로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분별심이 사라지면 나타나는 자유롭고 신비한 세계이다.

21세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스마트 세상도 굉장한 수준이다. 백년 이백년 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세계이다. 의상조사 법성계의 일미진중 함시방—微塵中含十方의 세계는 많은 부분 우리 생활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조그만 메모리 칩에 엄청난 정보가 입력되어도 메모리 칩이 커진 일이 없으며 자료를 복사하여 출력하면 본래 자료의 분량과 똑같은 양을 얻을 수 있지 않은가. 피 한 방울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유전자정보가 모두 들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도 한 예이다.

벤쿠버 올림픽경기에서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경기를 하고 있는 상황 하나만으로도 중중무진의 화엄세계가 펼쳐진다. 김연아는 벤쿠버 경기장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동시에 전 지구에 자기의 모습을 화현化現으로 나타내고 있다. 우리의 눈이 대부분 놓쳐 버린 순간이 100분의 1초 간격으로 시각화되는 세상이다. 1초라는 극히 짧은 시간이 무한대로 확장되어 영상화되고, 인터넷에서는 이미 끝난 경기를 실황으로 계속 재생활 수 있

니 과거가 과거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핸드폰을 누르면 소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벤쿠버로 날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내 목소리가 어떻게 벤쿠버로 날아갈 수 있는 것일까? 채널을 맞추면 우리의 모습과 목소리는 세상 어디에도 나타난다. 이렇듯 색색의 세계(물질의 세계)와 소리의 세계는 이미 공간이동이 시작된 지 오래전이다.

물리학에서 최근 '초끈이론' 보다 한 차원 높은 'M이론' 이 출현했다. 물질의 최소 단위가 2차원인 면이라고 보는 이론인데 여기서 'M'이란 면(Membrane)이기도 하지만 신비(Mystery), 마법(Magic), 또는 어머니(Mother)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렇다. 이 세상은 물질 최소 단위부터 저우주까지 모두 마법인 것이다.

그리고 『유마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자 가장 멋진 마법은 거자씨 안에 수미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나도 아픈 불보살의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닐까.

## 2. 『유마경』이 제시하는 수행법

『유마경』에서는 다른 대승경전의 수행법과 마찬가지로 6바라밀과 사무량심四無量心<sup>1)</sup>, 사십법四攝法<sup>2)</sup>을 수행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유마경』만의 독특한 수행법으로 직심直心, 심심深心, 보리심菩提心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국품」에서 부처님의 국토란 바로 나의 마음이 깨끗한 상태라고 결론지어 말하면서 가장 먼저 '정직한 마음이 보살의 정도'라며 직심直심이 수행의 제일 조건임을 언급하고 있다.

「보살품」에서도 광엄동자가 '도량이란 어떤 곳입니까?' 하고 묻자 "곧은 마음(直心)이 도량이니 거짓이 없는 까닭이며, 행을 닦아 가는 것(發行)이 도량이니 능히 일을 관별할 수 있기 때문이며, 깊은 마음(深心)이 도량이니 공덕을 증진하기 때문이며, 보리심이 도량이니 잘못이 없기 때문이다."<sup>3)</sup>라고 말하고 있다.

정직한 마음으로 수행을 시작하여 점점 마음이

깊어지고 깊은 마음으로부터 보리심을 얻은 다음 육바라밀을 닦는 것이다. 바라밀 수행이란 이쪽 언덕에서 저쪽 피안의 언덕, 즉 생사가 없는 불이न्द्र의 세계로 건너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알려준다.

보시바라밀이라고 했을 때 보시와 보시바라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 보시란 욕심과 인색함을 버리고 공덕을 쌓는 행위이다. 그러나 보시바라밀이란 공덕을 쌓고 복을 받는 차원을 넘어서 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옹당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해야 하며, 相에 머물지 말고 보시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다. 바라밀 수행이란 이미 보시를 받는 사람과 보시를 하는 사람을 이원화시킬 수 없는 단계이다. 중생은 즉비중생即非衆生 곧 중생이 아니고, 그 이름이 중생일 뿐인 것이다. 보시와 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를 통해서 꿈이고 허깨비 같은 이 언덕에서 자유자재한 해탈의 언덕으로 건너갔으면 뱃목은 이미 의미가 없는 것이다. 복덕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해탈의 세계로 마음이 열려 있어 자비회사慈悲喜捨라는 네 가지 무량한 마음으로 중생을 만나게 되며, 사섭법이라는 네 가지 방법으로 모든 중생을 섭수하는 것이다.

#### IV. 맺음말

『유마경』이 이 시대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조명할 수 있겠지만 대승정신의 회복과不二사상이다.

부처님께서 반야 공을 설하셨을 때 대중의 반응은 호의불신狐疑不信 심즉광란心即狂亂이었다.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공空이라는 세계관은 누구라도 여우처럼 의심하면서 믿지 않고 마음이 광인狂人처럼 어지러웠을 것이다. 그러한 반야 공의 세계를 『유마경』에서는 이토록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거대한 스케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틀에 박힌 불교가 아닌 전혀 새로운 스타일로 대중을 선양하며,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마경』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경전이 되기 위해서는 새롭고 흥미로운 신개념의 전달방식으로 경전이 재해석되고 연구되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 및 일반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무겁지 않고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불교, 지나치게 예의바르고 엄숙하지 않아도 되는 불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호탕하고 재밌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유마거사처럼 말이다.

해질 무렵 바람결에 실려 온 연꽃의 향기를 맡아 본 일이 있는가? 진흙 속에서 핀 연꽃의 향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마경』은不二라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새로움도不二라는 본질을 벗어나 존재할 수는 없다. 우리 모두가不二의 세계에 눈을 뜰 때 인류는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

1) 사무량심 : 자무량慈無量 : 중생을 사랑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편안하고 즐거운 일을 구함으로써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을 가리킨다. 비무량悲無量 : 오도에 태어나 갖가지 몸과 마음의 고통에 시달리는 중생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말한다. 최무량喜無量 : 중생들이 즐거움으로부터 환희를 얻게 하려는 마음을 가리킨다. 사무량捨無量 : 위의 세 가지 마음을 버리고 다만 중생을 생각하되 미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마음을 가리킨다. 『대지도론』 권20 『대정장』 25권, p.208c9)

2) 사섭법 : 보시捨布施攝. 애어섭愛語攝. 이행섭利行攝. 동사섭同事攝으로서 보살이 중생을 섭수하여 부처님 도에 인도함으로써 중생을 깨닫게 하는 네 가지 방법.

3) 『대정장』 14권, p.542c 直心是道場, 無虛假故; 發行是道場, 能辦事故; 深心是道場, 增益功德故; 菩提心是道場, 無錯謬故.





꽃보다  
스님



## 매우기사梅雨寄思

원범 / 운문사승가대학 강사

어제 아침부터 보슬보슬 내리던 몇 줄기 비가 저녁이 되자 비바람으로 변해가더니 밤새 도랑을 하얗게 덮어 놓았다. 孟浩然의 시 〈春曉〉가 그려 놓은 봄날 새벽정취이다.

“봄잠에 날 새는 줄 몰랐더니 곳곳에 새 소리 들리네. 간밤 비바람 소리에 꽃잎은 얼마나 떨어졌을꼬? (春眠不覺曉 處處聞啼鳥 夜來風雨聲 花落知多少)”

짧은 봄밤, 비바람소리에 잠 못 들다가 겨우 잠자리에 들었나 싶었는데 새소리가 새벽을 알린다. 비바람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많은 꽃잎이 떨어졌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새소리는 봄 새벽을 알리는데 도랑을 물들인 하얀 꽃잎은 이미 봄의 아쉬움이다.

어느 날 미란다 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물었다.

“당신은 선행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실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볼 수 있을 때만 믿고 싶습니다. 그 좋은 결과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에 나가세나존자는 친절히 질문함으로써 답변을 대신하였다.

“위대한 왕이시여, 나 또한 당신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다 자랐

고 물은 충분하며 땅은 매우 기름져 보입니다. 이 나무에 열매가 열릴 것 같으십니까?”

왕이 말하였다.

“이 나무는 다 컸고 물도 충분하고 땅도 좋으므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나가세나는 질문을 계속하였다.

“만약 확실히 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면 나에게 그 열매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뿌리에, 줄기에, 잎사귀에, 가지에 있습니까? 저 또한 실제적인 수행자이기에 본 것만을 믿습니다.”

왕이 말하였다. “존자여! 어떻게 열매가 나오기 전에 그것을 보여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무르익고 환경이 알맞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나가세나 존자는 처음 왕이 질문하였던 선행이 좋은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에 대한 답을 하였다.

“어느 곳에 결과가 나타나는지 지금 당장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무르익고 조건이 맞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선행과 악행의 결과도 시간이 성숙되면 일어날 것입니다.”

시간이 익고 조건이 맞아서인가? 다시 운문사 대중으로 산 지 일곱 해, 이번 겨울 방학에는 미얀마로 한 달간 수행을 떠나게 되었다. 그동안 채우

고자, 이루고자 해서 몸살을 앓던 나, 초심이 견고한 눈 푸른 학인스님들을 통해서 비쳐지는 내 모습은 ‘三毒心으로 火宅에 安住’ 그것이였다.

항상 조석으로 예불하며 부처님께 귀의하고 발원하고 참회한 날들이었음에도 나는 왜, 지금, 여기, 괴로움이 소멸되는 법회를 맞보지 못하고 있는지? 덕지덕지 앉아 딱딱하게 굳어버린 수많은相은 도대체 또 무슨 일인지?

그저 한 달 간 앉아서 배의 일어남과 사라짐, 행선하면서 발을 옮김과 놓음, 서 있을 때는 서 있음, 생각이 일어날 때는 생각이라고 명칭을 붙이며 알아차림 하였을 뿐이었는데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렇다. 나의 삶에는 어느 때부터인가 ‘절절함’과 ‘진실함’이 빠져 있었다.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기 위해’,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등등을 운운하면서 했던 그 많은 참회와 발원과 행위들은 그저 익숙한 일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저 간밤 비바람에 떨어진 꽃잎일지라도 겨우내 참고 견뎌 세월이 있었기에 오늘 찬란하게 꽃잎을 떨굴 수 있었듯 그 익숙한 일상이 오늘 변화를 이루어 내고 있었으리라.

멀리 휘황찬란하게 보이는 쉼다곤 파고다에 조석으로 합장하고 머리 조아리는 마음에는 어느 사이인가 진정 부처님 법을 바르게 알기를, 부처님께서 체험하였던 님바나를 나 또한 체득할 수 있기를,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기를, 하나 거짓됨 없이 진실하고도 성실하게, 가슴 미어지도록 절절하고 오롯하게 발원하고 있었다. 幻에서 벗어나기를 갈구했음에도 幻의 늪속에서 속이며 속고 살았던 나를 바로 보게 된 것이 이번 수행길의 普果라고 할 수 있다.

미얀마에서 수행하였던 센터의 사야도 범문이다.

“우리는 열반에 도달하기 전에는 윤회라는 긴 여정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만약 우리가 어느

나라를 여행하려고 한다면 여행에 필요한 지식 등 준비물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준비물을 갖추어야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윤회의 긴 여행을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준비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처님은 악행을 멀리하고 선행하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어떤 곳을 여행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지, 정해져 있다면 그 목적지와 그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 나는 어떠한 준비물을 갖추고 있는지, 그 준비물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준비물인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진실하고도 절절하게 바로 보아야 하겠다. 뼈에 사무치는 추위를 견뎌내고 나서야 코를 찌르는 향기를 얻는 저 매화처럼 말이다. ❀



질신이 다 달도록 봄을 참아 헤매었어요.

봄  
은 우리집 매화나무 가지끝에 걸려있는 것을.

2013



## 고대인도 사상사思想史에서 본 붓다의 성도 ②

- 초기불전(初期佛典, Nikāya)  
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

무진 / 사교과

### 목 차

- I. 서 론
- II. 본 론
  1. 고대인도 사상사의 전개
    - 1) 리그베다
    - 2) 후기베다
    - 3) 우파니샤드
    - 4) 신흥 자유사상가의 출현
  2. 불교 성립과 발전
    - 1) 붓다의 성도
    - 2) 붓다의 전법
      - ① 응병여약(應病與藥)의 설법
      - ② 전도선언(傳道宣言)과 전법
    3. 붓다의 성도가 끼친 영향
- III. 결 론

출가 이후 왕자는 외도이자 선정 수행자인 알라라 갈라마에게서 무소유처無所有處定<sup>15)</sup>, 웃다가 라마뿔따를 만나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sup>16)</sup>의 최고 경지까지 도달한다. 그러나 이내 바른 수행법이 아님을 깨닫고 떠난다. 초기불전初期佛典에 따르면 붓다는 당시 상황을 이 같이 회고하고 있다.

‘이 법은 (속된 것들을) 염오하도록, 욕망을 빛바래도록, 그치도록, 고요애로, 초범지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어 주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무소유처에 다시 태어남에 이바지할 뿐이다.’<sup>17)</sup>

싯다르타는 다시 라자그리하에서 남쪽으로 80km 가량 떨어진 우루벨라(Uruvela) 마을의 네란자라(Nerānjarā) 강 근처의 숲속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이곳에서 그는 괴롭더라도 모든 욕망을 떨치면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따르던 5명의 수행자(五比丘<sup>18)</sup>)와 함께 치열한 고행을 시작한다. 선정을 닦을 때처럼 하늘에 태어나려는 것이 아닌, 육체를 조복시켜 정신의 자유를 얻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 또한 올바른 길이 아님을 깨달은 그는 문득 과거 농경제에서 경험한 초선이 참된 수행법일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품게 된다.

새로운 결심이 선 싯다르타는 네란자라 강물로 몸을 깨끗이 씻고, 처녀 수자따로부터 우유죽을 공양 받아 기력을 회복한다. 이를 본 오비구는 타락했다고 비난하며 떠나간다. 그는 뽀빠라(Pippala)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앉아 새로운 수행을 시작한다.

어느 밤, 드디어 싯다르타는 진리를 구족한 자, 붓다가 된다. 초선을 통해 단숨에 사선四禪까지 체득한 뒤, 밤의 초경初更, 이경二更, 삼경三更에 각각 숙명통宿命通, 천안통天眼通, 누진통漏盡通의 삼신통三神通을 구족하여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 초기불전은 성도의 순간을 이 같이 묘사하고 있다.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宿命通)로 마음을 향하게 했다. 그런 나는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했다. ... 이것이 내가 밤의 초경初更에 증득한 첫 번째 명지明知이다.

...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天眼通)로 마음을 향하게 했다. ... 이것이 내가 밤의 이경二更에 증득한 두 번째 명지明知이다.

...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漏盡通)로 마음을 향하게 했다. 나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 담음이다.' 라고 ... 이것이 밤의 삼경三更에 내가 증득한 세 번째 명지明知이다.<sup>19)</sup>

붓다는 전통적으로 사선삼명四禪三明<sup>20)</sup>이라 불리는 이 과정을 통해 존재는 업에 따른 재생再生, 다시 말해 윤회의 고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여실히 목격한다. 연이어 생사과정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괴로움의 일어남, 소멸, 소멸로 인도하는 도 담음을 발견한다. 즉 도도에 들어가는 첫 관문은 고쁨에 대한 처절한 인식에서 시작하는 셈이다.

특히 주시해야 할 부분은 이 깨달음이 향후 붓다 교설敎說의 핵심 기반으로써 작용한다는 점이다. 후일 초기불전에 나타나는 불교교리는 삼경三更의 깨달음에 모두 포섭된다. 특히 이들 교설의 핵

심은 증도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삼경의 깨달음	내 용	사성제 四聖諦	붓다의 교설
이것이 괴로움이다	고의 인식	고상제 苦聖諦	사고팔고四苦八苦, 삼법인三法印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고의 원인	집성제 集聖諦	유전연기流轉緣起, 오은五蘊, 십이처十二處, 십팔계十八界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고의 소멸	멸성제 滅聖諦	환멸연기還滅緣起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담음이다	고열행법의 구체적 방법론	도성제 道聖諦	팔정도八正道, 삼학三學, 삼십칠조도품三十七助道品

요컨대 연기법緣起法으로 대표되는 붓다의 교설은 전부 사성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교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성제 일부를 체계화시키고 세분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붓다가 각 대상에게 눈높이를 맞춘 대기설법對機說法 방식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한 우회적 근거이기도 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기로 한다.

## 2) 붓다의 전법 : 변화된 수행자관의 제시

성도 후 첫 교화敎化에 앞서 붓다는 누구에게 먼저 법을 설해야 할지 다시 생각에 잠긴다. 처음 떠오른 사람은 과거 두 스승인 알라라 갈라마와 웃

15) 마음(識)의 비존재를 觀하는 선정을 닦는 경지 또는 마음 상태이다.

16) 有想(마음)이 무한히 확장되는 것(無邊)을 관하는 識無邊處地를 버리는 非想的 선정과 無想(마음)의 비존재(無所有)를 관하는 無所有處地를 버리는 非非想的 선정을 함께 닦는 경지 또는 마음 상태이다.

17) 『삿짜까 긴 경 (Mahā-saccaka sutta, M36), 14~15.

18) 콘단나(Kondanna·宗達如)·앗사지(Assaji·阿說示)·마하나마(Mahanama·摩訶男)·밋디아(Bhaddhiya·婆提)·법빠(Vappa·婆頗) 다섯 비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은 붓다 성도 전 함께 수행하였고, 성도 후에는 초전법륜初轉法輪을 듣고 최초로 석가에게 귀의했다. 본래 웃다까 라마뻬따 교단의 수행자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19) 앞의 經, 34~44.

20) 四禪은 붓다가 경험한 色界 初禪부터 四禪까지의 네 단계를, 三明은 初更, 二更, 三更에 각기 체득한 宿命通, 天眼通, 漏盡通 등의 세 明知를 뜻한다.

다까 라마뻬따였지만, 세상을 떠난 뒤였다. 마침내 그는 오비구에게 법을 설하기로 결정하고 바라나시 녹야원으로 향한다.

### ① 응병여약應病與藥의 설법

첫 번째 설법에서 붓다는 당시 자유사상가들이 주장하던 쾌락주의와 고행주의 두 극단을 여의고 중도로 나아갈 것을 강조한다.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확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여래는 中道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sup>21)</sup>

붓다는 오비구에게 이러한 중도의 실천 수행법인 팔정도를 가르친다. 뒤이어 고집멸도 사성계를 설함과 함께 도성계를 깨달하는 최후의 수단은 결국 팔정도임을 밝힌다. 이 설법에서 오비구 중 한 명인 콘단나가 깨달음을 증득해 제자들 중 최초의 아라한이 된다.

두 번째로 붓다는 무아無我<sup>22)</sup>를 설하는데, 이때 오비구 모두가 번뇌로부터 해탈해 새로운 법을 위시한 수행 공동체가 탄생한다.

그의 독특한 교화 방식은 당시부터 구체적인 체계를 갖추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오비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도부터 무아에 이르기까지 점차 세분화하며 절대 진리에 도달하는 길을 친절히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향은 세 번째 설법<sup>23)</sup>을 담은 『불타오름 경 (Āditta Sutta, S35:28)』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주석서는 붓다가 불의 신[Agni]<sup>24)</sup>을 섬기다 불법에 귀의한 가섭 삼형제<sup>25)</sup>와 그들의 제자 1000명에게 설법을 하기에 앞서 사유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들은 아침저녁으로 불을 섬기던 자들이었다. 그러니 이들에게 12처(dvādas-āyatanāni)가 불붙고 불타오르고 있음을 설해야겠다. 그러면 그들은 아라한됨을 증득할 수 있을 것이다.’<sup>26)</sup>

이 설법<sup>27)</sup> 직후 대중들은 깨달음을 얻는다. 종전까지 그들의 사상적 중심이었던 불의 비유를 통해 불법佛法을 이해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붓다는 모든 대상에게 이해 정도를 고려한 대기

21) 『초전법륜 경 (Dhammacakkappavattana Sutta, S56:11)』, 3.

22) ‘그것이 어떠한 느낌이면 … 그것이 어떠한 인식이면 …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무아의 특징 경 (Anattalakkhana Sutta, S22:59)』, 5.

23) 『율장』의 『대품 (Vin.i.34~35)』은 이 경이 부처님께서 행하신 세 번째 설법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24) <불>을 신격화한 고대 인도의 神. 아그니는 본래 보통 명사로서 <불>을 의미한다. 아그니는 供物을 天上의 神에게 운반하고, 神을 祭場으로 안내해 神과 人間의 使者라고 하였다. 『종교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25) 가섭 삼형제(Tebhātika-Jaṭṭila, 직역하면 영킨 머리 삼형제)는 우루벨라의 네란자라 강 언덕에 살고 있었다. 망형인 우루벨라 깃사빠(Uruvela-Kassapa)는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제일 상류에, 둘째인 나디깃사빠(Nadi-Kassapa)는 300명의 무리와 함께 중류에, 셋째인 가야깃사빠(Gayā-Kassapa)는 200명의 무리와 함께 하류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의 귀의를 계기로 붓다는 1,000명의 제자와 아울러 라자가하에서 큰 명성을 얻게 된다.

26) SA.ii.363.

27) ‘일체는 불타오르고 있다. 눈은 … 형색은 … 눈의 알음알이는 … 눈의 감각접촉은 … 느낌은 불타오르고 있다. …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불타오름 경 (Āditta Sutta, S35:28)』, 3~4.

설법對機說法을 펼친다. 요컨대 병에 따라 약을 처방해주는 응병여약應病與藥의 설법인 것이다. 초기 설법 내용을 자기 차례次第와 의미에 따라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차례 次第	설법대상	병病	약藥	설법내용	의 의
1				중도中道	열반涅槃 실천의 궁극적 도리
				팔정도八正道	실천적 방법론
2	오비구 五比丘	고행주의 苦行主義	탈락국단 의 실천	사상제 四聖諦	고행에서 열반에 이르는 총체적 인식론
				무이無我	
3	가섭 3형제와 1000명의 제자	제식주의 儀式主義	꿈에 대한 바른 인식	십이처 무아 十二處 無我	꿈 인식의 해체론

#### ② 전도선언傳道宣言과 전법

붓다는 비구들에게 교화敎化의 길에 나설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 아라한과를 증득한 제자가 스승이 되어 법을 펼치는 식으로, 당시로써는 매우 현대적이고 파격적인 시스템이다. 특히 붓다가 가섭 형제를 제도하러 떠나기 전 선포한 전도선언이 아주 인상 깊다. 이 선언은 현재까지 불교 포교의 근본정신이자 지침으로 회자된다.

“비구들이여, 나는 인간과 천상에 있는 모든 율가미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역시 인간과 천상에 있는 모든 율가미에서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율행을 떠나라. 들이서 같은 길로 가지 말라. 비구들이여, 법을 설하라.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

하고 끝도 훌륭한 (법을 설하고),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여 (법을 설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梵行을 드러내어라. 눈에 먼지가 적게 들어간 중생들이 있다. 법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파멸할 것이다. (그러나 법을 들으면) 그들은 법에 대해 구경의 지혜를 가지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우두렐라에 있는 세나니가마(장군촌)로 법을 설하러 갈 것이다.”<sup>28)</sup>

이후 45여년간 전법의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던 붓다는 80세가 되던 해, 쿠시나agara에서 선정에 든 채 입멸入滅한다. 비구들에게 반열반을 예고하기 직전 붓다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 법만을 귀의처로 삼으라는 가르침을 남긴다.<sup>29)</sup> 잘못된 수행으로 좌표를 잃을 수 있는 주객전도主客顛倒의 상황을 경계하는 한편 오로지 정법正法에 귀의하기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

(다음호에 계속)

28) 『마라의 율가미 경 (Mārapāsa-Sutta, S4:5)』, 3.

29) “그러므로 여기서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自燈明) 자신을 귀의처로 삼아(自歸依) 머물고, 남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法燈明) 법을 귀의처로 삼아(法歸依) 머물고, 다른 것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대반열반경 (Mahāparinibbana Sutta, 大般涅槃經, D16)』, 2. 26.



## 물속에 우유가 스며들 듯

지안 / 사미니과

운문사에 입방한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들에서 있는 목련나무는 하루가 다르게 꽃을 활짝 피워내어 그 하얗고 순결한 흰빛에 눈이 부십니다. 눈앞에 푸르게 펼쳐진 운문산 자락의 풍경은 마음까지 넉넉하고 푸르게 하고, 따뜻한 봄바람에 꽃향기가 실려와 제 코와 온몸을 감싸며 돕니다. 봄을 맞이하여 나날이 아름답게 피어나며 깨어나고 있는 운문도량을 거닐면서 말로는 다 표현 못할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가를 생각하면 가슴 벅찬 행복과 감사로 마음이 뿌듯이 차오릅니다.

입방한 다음날 모든 대중이 함께 모여 방부 인사를 드릴 때, 회주 스님께서 저희들 신입생 스님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유가 물속으로 섞여 들듯이 운문사 대중 속으로 섞여들라' 하시던 말씀. 그 말씀을 항상 명심하면서 운문도량의 모든 것을 저의 내면 깊이 받아들이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많은 것이 익숙해지고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입방을 하기 불과 며칠 전에 뜻하지 않게 갑작스러운 다리 부상을 입고 치료를 하지 못한 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상반 소임자 스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담임 스님을 비





롯데서 입승스님, 큰 부전 스님, 작은 부전 스님 등 상반스님들이 저보다 더 제 몸을 걱정해 주고 염려해주었습니다. 그 깊고 따뜻한 배려에 몸 둘 바를 모를 정도로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더불어 도반스님들 모두 따뜻한 말과 크고 작은 배려로 조금이라도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에 가슴 깊은 감사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어른스님, 상반스님, 도반스님들과 큰 가족을 이룰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가를 생각하며, 하루빨리 완전히 회복하여 이 대중들을 위해 더 열심히 발로 뛰고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지금의 가장 큰 발원 한 가지는 반 스님들과 다 함께 부쩍 성장한 모습으로 4년의 강원생활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서툴고 부족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치문반 스님들을 위해 모든 상반스님들이 헌신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세심하게 살피주시고 저희들이 할 일들을 대신해 주시느라 바쁘신 모습들을 보며 진심으로 큰 감사와 존경심을 느낍니다. 특히 큰방생활을 함께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치문반을 이끌어주시는 사집반 스님들이 많은 책임과 소임으로 입술이 부르토고 목이 다 쉴 만큼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모습들을 지켜보며 몸은 힘들어도 항상 깨어 있는 그 빛나는 눈빛과 굳건한 내면의 강한 힘을 느끼며 정말 의지가 되고 든든함을 느낍니다. 또한 저도 하루빨리 잘 배우고 익히고 내면의 힘을 키워서 저런 멋진 모습으로 당당하게 성장해 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쪼록 강원에서의 마지막 하루를 보내는 그 순간까지 몸과 마음 모두 건강히 다 함께 행복한 회향의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부처님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봄,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아름다운 계절

김현일 / 경산 <김현일한의원> 원장



겨우내 그리워했던 봄벌의 따스함이 지천에 가득한때 입니다. 천천히 걷다 보면 발바닥에 전해지는 땅의 숨에서도 봄에 와닿는 부드러운 바람의 내음에서도 나뭇잎 위에 부서지는 반짝이는 햇살에서도 봄은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한껏 내 몸 속에 봄을 담아봅니다. 마른가지에서 파릇한 싹이 오르듯 움츠렸던 내 몸 속 세포들이 생기로 하나하나 살아 오르는 느낌입니다. 한의학의 성서와 같다고 볼 수 있는 「황제내경」에서는 봄의 3개월은 발진發陳의 계절이라 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겨우내 안으로 모여져 저장되어 있던 기운이 봄의 솟아나는 생명력에 스스로의 충만함을 밖으로 드러내며 묵은 것을 떨쳐내고 소생함을 의미합니다. 자연은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가득히 뿜어 올려 땅속에 숨죽이고 있던 씨앗들을 싹틔우며 하나둘 따사로움과 푸른 생기로 지천을 봄으로 채워나갑니다.

反常爲病, 昇降失常爲病 ;

일상에서 벗어나면 병이 된다. 오르고 내리는 데 일정한 법도를 벗어나면 병이 된다.

인체를 소우주라 말합니다. 자연 속에서 숨쉬며 살아 있고 자연의 변화의 흐름을 그대로 담고 있는 스스로 자연인 인간이기에 우리 몸에서도 똑같은 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흔히들 자연스럽다 말합니다. 이 말은 편안하고 균형 잡힌 조화로운 속에 있다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땐 그만큼의 대가(태풍, 홍수, 혹한의 추위...)가 따르고 그 대가를 통해 다시 균형을 찾아간다는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봄의 기운에 순응하여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건강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질병이라는 문제가 생겨날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움이 깨어진 우리 몸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흔히 등장하는 한의학적 설명이 수승화강(水昇火降)이라는 기본원리입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물기운이 오르고 불기운이 내려온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의 태양이 땅의 물에 불의 기운을 주면 물은 그 기운을 받아 증발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이치인데 이 자연의 원리가 우리 인체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체에서 火의 기운을 주관하는 심(心)의 기운이 水의 기운을 주관하는 신(腎)의 기운을 북돋아 줌으로써 우리 몸의 여러 활동과 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화의 기운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생명력, 활동력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수의 기운은 생명력, 활동력이 움직일 수 있게 뒷받침해주는 영양분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활동력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화시켜 설명하면 심장의 박동과 폐의 호흡을 통한 횡경막의 움직임이 복부로 사지로 혈액을 움직이게 하고 복부의 움직임을 일으켜 위장 간을 통한 양분의 흡수와 노폐물의 배설을 촉진하고 흡수된 양분과 정화된 혈액은 다시 심폐로 돌아가서 심장의 생명력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수와 화로 대표되는 생명력과 영양분의 움직임에 균형이 깨어지고 흐름에 문제가 생겨나면 우리 몸은 자연 속의 재해와 같은 건강상의 문제들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 봄에 접하기 쉬운 춘곤증의 예를 들면 심신을 지나치게 혹사한 사람이 봄이 찾아오면 온 몸이 노곤해지고 특히 식사 후에 졸리는 증상을 호소하며 식욕부진과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겨울에 저장해놓은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써하거나, 대소변 이상 등 수승화강의 흐름을 방해하는 내부적인 원인들에 의해 봄의 밖으로 솟아나는 생명력을 내 몸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여 아래로 처지거나 막히는 현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찾아오는 알러지성 비염이나 피부알레르기 등의 증상들도 역시 여러 가지 원인물질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드러나는 증상이 다를 뿐 근본은 나의 생명력이 자연에 순응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증상일 따름입니다. 갱년기 우울증, 상열감, 안면홍조, 갑상선기능항진, 저하증, 생리불순, 당뇨, 혈압, 천식, 두드러기, 가려움, 역류성식도염 등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병증들이 여기에서 벗어나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생겨나고 묵은 것은 사라집니다. 스트레스로 통칭되는 외부(목적, 마음적)의 자극이 들어왔을 때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음식을 통한 양분과 호흡을 통한 에너지가 결합을 하고 움직임이 일어나고 대사산물(피로물질, 열 등을 포함)들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양분과 에너지의 충분한 공급과 대사 후 생겨난 대사산물의 충분한 배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건강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화가 쌓인다, 화병이다' 하는 것들도 대사산물의 발생과 배설에 균형이 깨어진 것일 따름입니다. 양분을 만들어내는 재료(음식물, 공기 등)의 맑고 충실함과 이것을 양분화시키는 내 몸의 힘과 대사산물의 배설(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한)의 원활함이 건강

의 모든 것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겨난 만큼 충분히 배설할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내 몸은 항상 자연스러운 건강한 상태에 놓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해결하는 능력(소화, 호흡, 땀, 소변, 대변)이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소화, 흡수, 배설력의 저하는 모든 질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과도한 노동도 소화, 흡수, 배설력의 저하를 동반할 때 내 몸에 큰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화, 흡수, 배설력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적당한 스트레칭과 근력운동입니다. 가벼운 산책과 걷기, 달리기 등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칭이 전신관절과 근육의 긴장을 풀어냄으로써 내 몸이 긴장과 이완의 균형 속에 탄력 있고 생기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근력운동을 통한 심폐의 혁혁거림과 흐르는 땀이 구석구석 내 몸의 찌든 때를 벗겨내고 내 피부를 숨쉬게 합니다. 걷기를 통한 팔, 다리와 복부의 움직임이 소화력을 높이고 장간에 쌓여 있던 묵은 찌꺼기를 씻어냅니다. 이러한 몸을 통한 가벼운 방법들의 실천만으로도 내 몸은 소화, 흡수, 배설이라는 문제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음의 스트레칭이라 이야기하는 명상입니다. 몸은 마음의 가장 바깥부분이며 마음은 몸의 가장 안부분이라는 말이 있듯이, 마음의 긴장이 몸의 긴장으로 이어지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몸의 긴장 또한 마음의 긴장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몸, 마음이기에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호흡명상, 행선, 좌선 등의 여러 명상법들은 마음을 통한 몸의 정화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속에서, 천천히 내딛는 무심한 발걸음에서, 확고하고 안락한 좌선 속에서 몸과 마음은 가벼워지고 맑게 살아날 것입니다.

아지랑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주체 못할 생명력에 터져 나오는 새싹들로 가득한 봄의 산천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를 스스로 자연스럽게 만드는 너무나 멋진 공간입니다.

이 봄, 가벼운 운동과 호흡 그리고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정화하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

## 달라이라마 아침 기도문



오늘  
제가 살아있는 것이  
다행입니다.

제가 이 귀한 인생을 얻었으니,

오늘도  
화를 내지 않고  
어려운 일도 인내하겠습니다.

좋은 말을 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하면서  
저의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베풀겠습니다.

이 귀한 오늘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 치암중죄 금일참회 합니다

도우 / 사집과

순순히 물러나지 않던 겨울이 이제 두 손을 들고 자취를 감춘 듯합니다.

산뜻한 봄소식과 함께 운문사 청풍료에 걸망을 풀어 놓으신 치문반 스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른스님과 대중스님들 안녕하십니까? 사집반 도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힘들고 불행해져 보이지 않는 의지처가 간절해질 때, 절이나 교회를 찾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도 역시 같은 경우로 절을 찾아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법당에 앉아 스님을 따라 천수경을 읽으며 가슴 깊이 받아들인 부분이 '치암중죄 금일참회'란 부분이었습니다.

어리석어 지은 중한 죄 참회합니다. '치암'은 세간지에서 어리석은 것이고, 출세간지에서 어리석은 것을 '우치'라 하며, 이는 현상이나 사물의 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명입니다.

"진정 어리석은 우치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남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의 말만 들으라고 소리를 높이며, 남에게서 배울 것이 없다 하고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라며 흔히 짓는 많은 잘못들 가운데 "몰라서 그랬으니까 괜찮아"란 말을 어른들이나 친구로부터 들어본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몰라서 행한 잘못된 일들은 나쁜 일이 아니고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죄를 참회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알고 저지른 잘못과 모르고 저지른 잘못들 중 모르고 저지른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 숨쉬는 동안 죄업을 짓지 않는 순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만큼 죄업을 짓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생을 살아가면서 또 윤회를 거듭하는 동안 한 찰나도 죄업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고 있으며, 나쁜 의도도 없고 또 진실해 보이는 모든 일들이 영원한 진리임을 확신



할 수 있을까? 또한 어리석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자 엄청난 부끄러움에 몸 둘 바를 모른 채,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나 덕분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를 볼 수 있었고, 아مان에 가득 찬 채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저를 보았습니다. 모든 업장이 맑아져서 성불하는 순간까지, '나는 언제나 치암의 중죄를 짓고 있겠구나' 하는 무섭고 아픈 진실을 알았습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모든 재앙의 근본이며 모르는 것은 곧 큰 재앙이다. 어리석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이라고 성현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닥친 슬픔과 고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치' 였던 것입니다.

새벽에 사시에 그리고 저녁에 우리는 예불을 하러 범당으로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배하러 오신 불자님들을 마주쳐서 지나곤 하지요. 그분들 중 아주 공손한 마음이 느껴지도록 우리를 향해 합장 저두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큰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에 제 고개는 저절로 땅을 향합니다. 제가 입은 장삼과 만의에 그분들은 공경스런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이겠지만, 장삼과 만의를 입고 식발염의한 지 길어야 3년이 채 안 되는 제 몸뚱이에겐 과분한 예우인지라, 항상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공부해야 하는구나, 끊임없이 공부하고 앞으로 나아가 저분들의 합장을 감사히 받아 회향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하는구나.' 라고 매번 다짐해봅니다. 그렇지만 치암의 중죄를 한 순간도 벗어날 수 없는 저는, 장삼과 만의를 탈하고 지대방 문고리를 잡는 순간부터 다시 우치로 뒤덮여 중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출가할 때, 불도를 다 이루고 범문을 다 배우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발원보다는 그저 출가를 하지 않고는 건딜 수가 없었던 그때의 제 마음과, 출가를 하지 않은 채 노인이 되버린 제 모습을 봐야 하는 순간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그 마음 평생 안고 기억하고 살아가겠다는 것, 그것이 제 발원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생겼습니다. 범당을 오가며 느꼈던 그 부끄러운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치의 중죄를 매일매일 참회하며 단 1초의 순간이라도 우치의 중죄에서 벗어나길 그리고 항상 노력하겠다고 매일 다짐하겠습니다. ㉞



##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임순례 / 영화감독



인간 모두 각자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듯이 동물 또한 이 커다란 우주 안에서 생명을 부여받고 태어난 본인의 섭리와 인연이 있을 터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동물은 인간들의 영구적 노예이자 노리개감이며, 아무 때나 죽일 수 있는 사형수로 전락한 지 오래이다. 인간과 가장 가까운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먹는 풍습이 아직도 남아 있는 대한민국에서의 동물의 지위는 한층 더 열악하다. 미물조차도 함부로 죽이지 않기 위해 개숫물도 식혀서 버렸고 감나무에 까치밥을 남겨 두었는데 수많은 불교신자가 사는 나라에서 생명폭력에 대한 무신경이 이토록 만연하게 되었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현재 한국은 4-5가구당 한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싱글세대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점점 더 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그 이면의 어둠도 비례하여 커지고 있는데, 흔히 번식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좁은 철장 안에서 평생 새끼만 낳는 모견과 그들과 교배를 하는 데 이용되는 종견이 존재한다. 어미들은 새끼들을 낳고 모정을 제대로 채 느낄 사이도 없이 4-5주만에 새끼를 빼앗기고 이를 슬퍼할 겨를도 없이 배란촉진제를 맞고 곧바로 임신을 해야 하는 임신 기계로 전락하다 기능이 약화되면 중국에는 개고기로 팔려 나가거나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우리가 펫샵에서 보는 귀엽고 예쁜 아기 강아지들 대부분은 이런 강아지 공장에서 생산된 것이고 충분한 모유섭취와 형제, 부모와 어울리면서 배워야 하는 사회화의 과정이 누락되면서 건강이나 사회적 관계형성에 있어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출발하는 셈이다. 또한 이런 불안전함은 반려동물 유기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를 내포한다. 1년에 유기되는 반려동물 수가 어렵잡아 십만 마리 정도 된다. 이중 절반 이상은 주인을 찾거나 입양되지 못해 안락사 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려동물을 새로 가족으로 맞이할 때는 펫샵의 예쁘고 어린 품종견이나 품종묘보다는 유기견 보호소나 동물단체를 통한 입양을 적극 권한다. 안락사 위기의 동물도 구하고 강아지 공장의 수요도 줄일 수 있으니 일석이조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입는 옷이나 덮는 이불 혹은 지갑, 장신구 등을 위해 수많은 동물들이 그들의 가족과 털을 산 채로 뽑히는

극악의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 신경이 살아 있을 때 가족을 벗겨내야 품질이 좋다는 이유로, 산 채로 제 살갓이 벗겨지는 모습을 제 눈으로 바라보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동물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 모피코트와 패딩에서 과연 멋진 자태와 온기를 느낄 수 있을까 되묻고 싶어진다.

동물과 관련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중 하나가 동물 실험분야이다. 매년 5억마리 정도의 척추동물이 각종 제약회사, 화장품회사, 식품회사의 제품들을 위해 희생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5,600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희생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질병은 1% 남짓이고 동물실험과 결과가 일치할 확률도 20%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동물실험은 지속되고 있다. 다행히 유럽연합의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에 힘입어 한국도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법안이 활발히 논의되는 중이다.

이런 시절 동물원 한번 안 가본 사람이 드물 정도로 동물원은 아이들에게 매우 즐거운 공간이다. 그러나 이면의 진실은 동물원은 동물들에게는 고통의 공간이라는 것이다. 동물원에 수용되어 있는 대부분의 야생동물은 그들 본연의 습성에 맞는 거주환경을 갖고 있지 못하며 관람조건 역시 그들에게는 스트레스를 배가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동물쇼는 그 중 악조건이 하나 더 추가된 셈인데,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동작을 숙련하기 위해 그들이 부대 뒤에서 얼마나 많은 강요와 폭력 속에서 훈련되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돌고래나 코끼리, 영장류 동물들은 대부분 무리지어 사회생활을 하고 지능이 매우 높으며 기억력

**특별기고** 심세해 고통에 대한 감수성도 대단히 높다. 그래서 non-human person 으로 불리우는, 이들 자아가 있는 동물들을 동물원에 가두거나 쇼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고통받는 동물 중에서 그 숫자나 내용으로 치면 식용으로 길러지는 농장동물이 단연 최고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식용으로 길러지는 농장동물은 전 세계 인구수의 열배에 달하는 600억 마리 정도이다. 그 중에서도 200억 마리가 넘는 닭들은 제 날개도 제대로 퍼지 못하는 A4용지 반장의 크기에서 살다 죽어야 한다. 그나마 이들에게 던져진 복이라면 이런 고통이 길게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라곤 할까?

삼계탕용 닭은 빠르면 한 달 이내에 출하되고 치킨용 닭도 40일을 넘기지 않으며 산란용 농장에서 숫 병아리는 감별되자마자 바로 분쇄기로 보내져 태어나자마자 생을 마감한다. 정상적인 속도보다 빨라도 너무 빠른 성장의 비밀은 성장호르몬제 주입에 있다. 뼈의 속도가 성장을 못 이겨 다리가 주저앉아도 상관없고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생기면 항생제를 투척한다. 90년대 말 푸에르토리코의 3세 여아가 월경을 시작



하여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적이 있는데 조사 결과 이 아이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가져온 값싼 산란용 닭을 자주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란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에스트로겐을 높게 함유한 사료를 먹은 닭들로 밝혀졌고 당시 2,000여명의 여자아이들이 성조숙증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육류 1톤당 항생제 사용량은 스웨덴의 24배 노르웨이의 18배라고 한다. 사육환경이 열악할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고 항생제 투여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육류뿐만이 아니라 양식어류에서도 사정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대규모 농장동물 사육은 이밖에도 수많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소나 양 같은 초식동물의 트림과 방귀를 통해 내뿜어지는 메탄가스가 지구의 대기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지구 온난화의 큰 축을 담당한다. 이들의 배설물은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키며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너무나 많은 물과 곡물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들을 위해 키워지는 곡물은 대부분 유전자 조작식품이고 이것은 인간에게 또 다른 악영향을 미친다. 동물사료로 쓰이는 많은 양의 곡물이 기아에 허덕이는 제 3세계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윤리적 측면이다.

한국에서 채식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그 이유가 불자라서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았다. 스님들은 채식하면서 어찌하여 채식하는 불자들은 많지 않은지 그 이유가 궁금하였다. 다람살라에서 티베트스님들의 법회를 들을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티베트 본토에서는 척박한 기후 탓에 채소가 부족해 육식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인도에 와서는 채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법회 자리에서 대중에게 채식에 대한 서원을 꼼꼼히 확인하였다. 완전히 굶을 사람, 일주일에 한번만 먹을 사람, 한 달에 한번 먹을 사람 등 자신의 형편과 근기에 맞게 공개적으로 채식할 장려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채식을 권유하는 스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작년에 부탄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행 중에 몇 번을 놀랐다. 그중 하나가 나라 전체를 통틀어도 살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깊고 맑은 하천 속에 팔뚝만한 물고기가 가득 보였지만 낚시도 금지라는 사실이었다. 물론 부탄 사람들 전체가 모두 다 채식하는 건 아니어서 고기나 해산물을 옆나라 인도에서 수입해 먹긴 하지만 대부분의 요리는 채식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같은 법령을 만든 왕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국민의 살생과보를 미리 예방하는 법령만큼 자비로운 법령이 어디 있겠는가(대신에 살생을 조금 더 해야 하는 인도인에게는 미안한 노릇이지만) 동물에 대한 자비심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불심이 놀라웠던 또 하나의 장면은 사진을 통해서 보았는데, 자신의 주인을 따라 탐돌이를 하는 염소의 모습이였다. 불탑을 한번 돌 때마다 업보가 소멸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티베트 아낙은 자신의 염소의 업보도 덜어주기 위해 염소가 좋아하는 채소를 뒷짐에 챙겨들었던 것이다.

우리도 이처럼 스님들이 채식 실천이나 동물에 대한 자비심 성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신자들에게 행하고 방생문화도 현대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 방생을 위해 물고기나 자라를 잡아야 하고 제대로 된 곳에 방생하지 않아 생기는 생태계 교란이나 그로 인한 죽음이 다반사로 벌어지기 때문에 방생의 참의미가 쇠퇴하고 있는 것을 적시한다면 형식적인 방생행사보다는 방생의 참의미를 되새기는 일에 더 힘써야 할 것 같다.

현대 사회에서의 진정한 방생은 육식을 줄이고 동물 실험된 화장품 등을 사지 않는 등 윤리적 소비를 하며 동물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쇼나 전시를 보지 않으며 나와 인연을 맺은 동물에게 무한한 책임과 자비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락사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나 죽음을 당장 목전에 둔 동물들을 구조하는 것을 돕는 것도 새로운 방생문화의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절집에서 여러 이유로 개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대부분 깊은 산중이라 다른 야생동물도 경계할 겸해서 진돗개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중성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그리 흔치는 않은 것 같다.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하고 인위적인 것을 싫어하는 절집에서는 중성화 수술이라는 말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절이라고 해도 자연적으로 잉태하는 새끼들을 모두 다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냥 둔다면 적어도 2-3년 안에 수십 마리로 늘어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일 테니까 말이다. 대부분은 아마도 신도들에게 분양을 할 터인데 어린 강아지는 예쁘고 귀여우므로 누구나 쉽게 데려갈 수 있다. 하지만 그 개들이 평생 사랑받고 편안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힘들다.

시골에서 진돗개는 기껏해야 대문가에 묶여 평생 산책 한번 못하고 낯선 사람을 향해 한껏 사나움을 뽐내다가 죽어가는 팔자이다. 개장수에게 팔려가는 일도 드문 일도 아니기 때문에 중성화를 통해 개 후손들의 불행한 삶을 차단하는 것도 하나의 큰 방편이지 않을까 싶다.

먹이를 찾아 한겨울에 절집 가까이 내려오는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일도 권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야생동물이 인간에게 너무 의존해 야생성을 잃지 않게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 또한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람살라를 처음 방문했을 때 대여섯 살 되는 어린 아이들 몇몇이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무엇을 하나 지켜보고 있었더니 찾길로 향해진 개미 길을 산 쪽으로 돌려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주위에 어른은 없었으니 누가 시킨 건 아니고 아이들 스스로 내린 판단이었다. 이들은 모기 한 마리 죽이는 일, 개미 한 마리 밟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했다.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이고 부러운 모습이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전생 중에서 그 어떤 생명도 그 어느 한 생은 나의 어머니이었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 그들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한다고 들었다. 우리 불가의 선지식들이 불자에게 주는 진정한 자비심과 지혜가 생명존중의 세계로 확장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해 본다. ☸



임순례 감독

1960년 인천생 / 한양대학교에서 영문학 공부 / 파리 제 8대학에서 영화학 석사  
영화 <외이키키 브라더스>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제보자> 등 연출  
2009년부터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KARA-korea animal rights advocates) 대표

# Vegan-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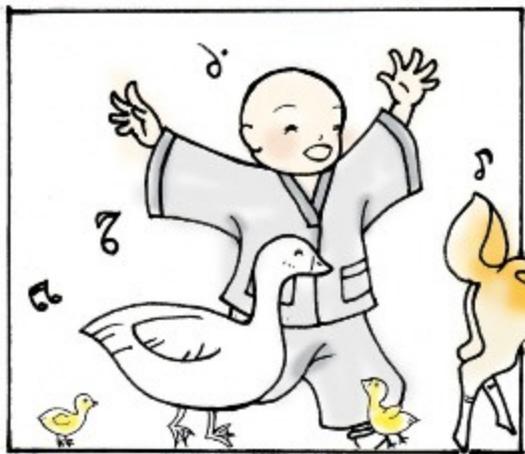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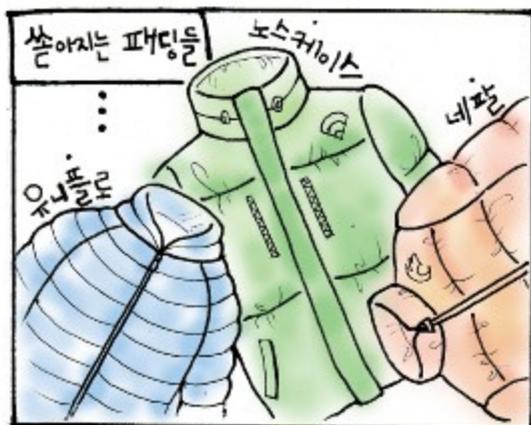
도훈 / 사집과



부처님,  
저의 말과 행동  
경솔히 하지 않겠습니다.



# Vegan-2



나의 부처님도 다른 부처님도 ♪  
모두 소중합니다.



## 신심信心

현담 / 사교과

지심귀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지심귀명례 시방삼세 제망찰해 상주일체 불타야중~  
지심귀명례...!

며칠 전 새벽예불을 모시던 중 무심코 칠정례의 '지심귀명례'를 외던 중 홀연히 망상이 일기 시작하더니 그 날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조석으로 하루 두세 번, 그동안 얼마나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던가 하고 돌아보니 난 참으로 형편없는 출가 수행자였던 것 같다.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곧 이것이 나의 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난 할 수 없다는 퇴보심이 생겨 도망치려는 생각부터 일으키곤 하였다. 진발심이 안되었던가보다.

삼배도 제대로 할 줄 몰랐던 내가 출가를 결심했던 이유는 마음공부를 해서 참나를 찾겠다는 발로에서였다. 그러나 수행에 대한 사전 지식도 정보도 없었던 터라 입산해서 받은 문화충격은 나를 오랫동안 이방인처럼 곁들게 만들었다. 그러다보니 종종 나는 내가 여기에 머물러야 하는 타당한 동기가 무엇인지 찾느라 잠을 설치기도 하고 무기력감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어제 충주에 계신 큰스님께 늦은 설 인사를 하러 가시는 은사스님을 따라나선 것이 재발심의 좋은 기회가 되었다. 큰스님이 계신 요사채로 들어서니 먼저 온 손님들이 있어 뒤에 서서 기다리자니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다. 그 손님이 스님의 근황을 묻자 답하시길 "요즘 매일 법당에 올라가 부처님... 제가 아무리 힘든 환경에 처하고 실망스런 일을 당하더라도 저의 신심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지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만감이 교차하며 눈물이 핑 돌았다. 그 찰나의 순간, 나의 길고 긴 방황에 종지부를 찍는 느낌이었다.

잠시 후 우리 차례가 되어 큰스님께 세배를 올리고 자리에 앉자 몇 마디의 덕담을 하시고 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공부하는 데는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하는데 첫째는 신심이고, 둘째는 의심이고, 셋째는 분심이

다. 그 중 먼저 신심을 갖되 어떤 장애에도 물러섬이 없는 신심이라야 한다. 제 발로 스스로 공부하겠다고 찾아 들어와서는 좀 힘들고 어렵다고 쉽게 물러서고 도망친다면 자신한테 무책임한 거야.”

큰스님의 방에서 물러나와 마루 끝에 서서 잠시 비 온 뒤의 청명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말할 수 없는 어떤 충만감이 가슴 한가득 채우는 듯 했다. 큰스님의 저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휴정 선사의 '선가귀감'에 있는 글로써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바이지만, 막상 우리 자신의 삶에 직면할 때마다 아득하고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꾸준히 밀고 나아가는 정진이 따라야 한다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큰스님께서 권면하셨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내가 무엇 때문에 출가를 했는지 또 출가자로서 나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았다. 지난 2년이 시행착오와 실수투성이로 점철된 시간들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것들을 반회하기 위해 그 경험들 위에 똑바로 서서 올바르게 이익이 되는 수행을 해야겠다.

임제 선사께서는 “수처작주隨處作主하면 입처개진立處皆眞이라” 즉 “어느 곳에서든 그 곳에서 스스로 주인이 된다면 그 모든 것이 참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렇듯 매 순간순간이 바로 나를 형성하는 일이고 또한 구체적인 수행생활임을 명심한다면 내가 내 삶에 주인이 될 것이며 그 끝에 삶과 수행이 하나가 되어 참성품을 보게 될 것이라 믿는다.

모처럼 正法의 문턱에 들어섰으면서도 그 정법을 몸에 익혀 생활화하지 못하면 중생계에서 헤어날 기약이 없음을 가슴 깊이 새기며 황백 스님의 계송으로 마무리할까 한다.

“생사윤회 벗어나기가 쉬운 일이다.  
죽을힘을 다하여 정진을 하라.  
찬 기운이 뺏속까지 사무쳐보아야  
매화 향기 비로소 코끝을 찌르리라.”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





## 절에 오니 절로 부처님 미소가 지어집니다

혜도 / 사집과

이른 봄 새벽, 금당 밖이 유난히 고요합니다. 역시나 온 세상이 흰색입니다.

봄을 알리며 며칠 전 핀 홍매 세 송이, 눈에 덮여 혹여 꽃잎이 다치지 않았을까?

너무 여러 보이는 꽃잎에 향기를 맡고 싶다가도 물 오른 가지와 어린 꽃봉오리들이 다칠까 그저 바라만 보았었는데……. 눈을 이고도 꽃잎 하나 다치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오롯이 피어 있습니다. 하기가 그 추운 겨울을 살아내고 핀 매화이니 제 몸과 맘보다 더 강할 텐데 말입니다.

작년 이맘때도 호거산하 만물이 축하해 주는 아름다운 날이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햇살이 비치면서 전날 밤부터 내린 눈이 녹기 시작하여 온 산이 맑은 은빛의 세계였습니다. 승가에서 맑은 수행자로 사는 것을 배우라고 햇빛이 내려주는 선물을 받으며 치문반 전원이 나반존자님께 인사 올리러 사리암 가는 날이었습니다.

자연은 그저 시공에 조화되어 자연스럽게 있을 뿐인데 제 맘대로 의미를 붙이고 해석합니다. 짧은 문장 몇 줄을 썼는데도 제 생각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휴, 하루를 살며 참회할 것이 한 가지라도 없게 되는 날이 올 수 있겠습니까? 출가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참회인데도 말입니다. 그래도 이 순간 그런 날을 위해 다시 다짐합니다.

강원의 제일 막내 치문 일년은 몸과 마음 모두 야단법석과 고요의 공존, 지치지 않는 발원과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참회, 본능과 이성의 다름, 스스로 나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지워가며 승가의 삶을 육화하는 세계였습니다.

새벽 네 시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만물을 깨우는 도량석 북탁소리에 대중은 일어나 대응전으로 갑니다. 새벽 종송과 꿇김 없이 이어지는 의미 있는 사물소리가 무명을 걷어냅니다.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앉으면 깊은 곳으로부터 선명하게 올라오는 기쁨과 설렘이 퍼집니다. 140여 명의 대중 스님이 좌정해 있어도 숲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순간, 조심스럽다가도 일순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어떤 난방장치도 없는 한겨울 법당 안이지만 온기가 인중을 중심으로 몸과 맘으로 퍼집니다. '왜 기쁘지'라는 생각은 이미 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왜 기쁘지, 왜 따스하지?'라고 출가 전의 습관대로 반문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온기도 기쁨도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그 순간 기뻐할 뿐입니다. 신기하게 기쁨의 시간도 더 지속되고 온기도 더 오래 조금씩 넓어져 갑니다. 예불이 끝나고 안행을 하며 먼저 출가하신 분들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맑은 기운이 가득한 가운데 함께 하지만 홀로 있어 행복해합니다.

치문을 너무 무겁게 산 듯 보이십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소소한 일상에 무엇이 그리 재미있는지 도반 스님들과 아이처럼 까르르 웃고 나면 그것이 우스워 다시 웃습니다. 지대방으로 뭐라도 들어오면 우리 반 모두는 언제부터인지 특유의 어조로 “우와~!” 합창을 합니다. 조금 크다 싶은 소리를 내고는 놀라 눈이 동그랄게 되지만 지나가시던 상반스님도 절로 미소를 짓게 하는 소리입니다. 이쯤 되면 꼭 들어보고 싶으시겠지만 더 이상 막내도 아니고 조행표의 깃발도 필력일 수 있으니 어려울 듯 합니다.

잘 지내다가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도반스님의 언행을 참다가 한마디 할라치면 ‘동업 중생입니다.’ 라는 수승한 도반스님의 말이 서릿발처럼 들립니다. ‘오양! 저런 언행 하는 사람과 동업 중생 하기 싫어요.’ 라고 어린 아이처럼 외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느 한순간 제가 심었을 원인으로 인해 이 순간 함께 하는 우리 모두는 동업 중생 맞습니다.

“무명 속에서 행했을 인과를 생각하며 선심을 유지하고 선업을 쌓으며 지혜를 얻어야지요.” 하시는 은사스님의 말씀이 떠오르며 선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인과를 생각하는 마음과 선심은 가까이 있다가도 어찌 그리 빨리 멀리 도망가버리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상반 스님 걱정 한마디에도 기가 폭 꺾이던 치문. 치문으로 지켜야 하는 몸 규칙은 하나씩 줄어 갔지만 천천히 물들어가는 마음의 규칙은 더 늘어가며 거울방향이 되었습니다. 조금은 여유 있게 받아들이며 귀한 말씀들을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모든 방향으로 찾아보았건만

어느 곳에도 자신보다 사랑스런 자 얻을 수 없네.

이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각자 자신이 사랑스러운 것

그러므로 자기의 행복을 원하는 자, 남을 해치지 않네.”(상웃따 니까야)라는 부처님 말씀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자가 없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미 스스로가 불성임을 알고 때만 벗겨 내면 된다.”는 회주스님의 말씀을 읽으며, 탐욕과 집착에 사로잡힌 헛된 때를 씻고 내 마음의 도량을 넓히겠다고 다짐 합니다.

“강원생활이 적응인지 수행인지 항상 생각해 봐야 한다.”는 상반스님의 조언에 가슴 철렁해 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이 부끄러운 뒤통수가 보이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가 죽으면 수행자의 삶이 아니겠지요. 어! 그런데 얼굴이 왜 그렇게 지쳐 보이냐는 눈빛이십니다. 이 생을 다할 때까지 어떤 상황에도 한결같이 부처님 미소를 지으며 실천하는 삶을 살다 가고 싶은, 아직은 학인이랍니다. 순간 기뻐하고 길게 번뇌합니다. 한 찰나 일었던 기쁨을 길게 지니고 싶어 공부하고 기도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가해서 사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신다면, “혜도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절에 오니 절로 부처님 미소가 온 마음에 퍼집니다.

깊은 밤 호거산 능선 위 부처님 미소 닮은 달님을 바라봅니다. 바람결 처진 소나무의 그윽한 솔향이 어깨를 감쌌습니다. 운문사에서 행복함을 몸과 맘에 담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눈을 감으면 온 하늘이 앉아 쉬는 이곳이 보이실 것입니다. 호거산하 만물의 무언설법도 들리시니까. 스스로 세운 원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지치지 않고 가시기를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마음 속 깊이 기원합니다. ☸



## 천불천탑 운주사

- 부처님 아니 계신 곳 없구내! -

원일 / 대교과

이번 겨울 한파도 한풀 꺾이고, 추위도 웬만큼 적응되었다. 유난히 길었던 이번 철도 무사히 지나고 기다리던 방학이다. “천불 천탑으로 유명한 곳인데… 운주사 알아? 절이 좋아!” 전부터 문화부 탐방을 약속했던 터라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 지루할 만큼 길었던 한 철의 마무리로 꿀 같은 기회이기도 했다. 그렇게 짧은 여정의 길을 나섰다.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 천불산 기슭에 위치한 운주사는 정확한 창건연대와 창건주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신비한 사찰이다. 다만, 전해 내려오는 재미있는 설화가 있다.

신라 말, 풍수지리 대가였던 도선 국사(827~898)는 풍수지리상 행주형行舟形인 우리 국토가 바다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운주사에 천불 천탑을 세워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루고자 했다. 하룻밤 동안 모든 불사를 마쳐야 했던 도선 국사는 범천에 도움을 청하여 많은 석공들의 손길을 빌려 불상 그리고 불탑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단 첫 닭이 울면 석공들은 하늘로 올라가야만 했다. 일은 문체없이 진행되었고, 마지막 불상을 마무리 작업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일을 하기 싫었던 심부름꾼 어린 사동이 장난으로 닭 울음소리를 흉내내었다. 이를 알 리 없는 석공들은 하늘로 돌아가버렸고, 그때까지 완성된 탑을 세어보니 딱 하나가 모

자랐고, 마지막 불상도 누운 채로 미완성되었다. 그때부터 운주사 일원에는 와불이 일어나는 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전설이 전해 오고 있다.

어느새 우리는 일주문을 통과하여 운주사로 향했다. 운주사를 들어가는 길목에서부터 붓다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다, 곳곳이 불상과 불탑이었다. 정확한 작가와 연대를 알 수 없는 불상의 모습은 불상이 지나온 세월을 보는 기분이었다. 홀쭉한 얼굴형에 선으로만 단순하게 표현된 눈과 입 그리고 커다란 코가 인상적이었다.

각각의 개성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불상들, 아마도 천년 동안 삼매에 드신 건 아닐까. 5층 석탑(거지탑)을 시작으로 쪽 뺨은 길을 올라야 운주사에 들어설 수 있었다.

시골 한적한 곳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운주사, 마치 고향에 온 기분이다.



오후의 따스한 햇볕이 더욱 편안함을 전한다. 우리는 대웅전 참배를 마치고 운주사 회주스님을 찾아뵈었다.

‘참선이면 참선, 간경이면 간경, 봉사면 봉사, 무엇을 하든 정해진 시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의 약속을 어기지 말고 한 가지를 입력하라’라는 스님의 말씀을 새기며 천불 천탑을 세운 도선 국사를 떠올렸다. 아마도 한 가지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건 간절했던 스님의 원력이 있었을 것이다. 맑은 차를 마시며 상쾌한 기분도 잠시, 해가 지기 전에 탐방을 해야 하기에 아쉬운 마음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다른 불상이 계신 곳으로…

천 개의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는 지장전을 지나 뒤쪽으로 가면 마치 극락세계로 갈 것만 같은 언덕이 있다. 위로 쪽 뺨은 돌길을 걷다보면 많은 불상들을 만난다. 그 중 거대한 바위벽이랑 암벽의 요철부분을 그대로 살린 부조형식의 마애여래좌상이 있다. 심하게 파손되었지만 자세히 보면 바위에 불상을 조각한 작가의 마음이 잠시 읽혀지는 듯 했다. 높이 높고 더 오르다 보니, 굉장히 크고 둥근 모양의 흥미로운 바위가 보인다. 짝싸게 돌계단을 따라 바위에 올랐다. 불사바위다. 탑과 불상들 그리고 먼산들이 한눈에 발 아래 굽어보이는데 마치 화엄의 세계가 펼쳐지듯 장엄함 속에 날아갈 듯한 가벼움이 느껴진다.

내려가는 길 역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불상들, 한껏 예술의 미를 자랑하니 다시금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고개를 돌리면 5층, 7층 석탑을 만날 수 있는데, 비스듬히 꺾여지른 바위 위에 흠을 파서 탑을 세웠는데 그 건축의 기술이 신라계 석탑양식이란다. 정교한 솜씨에 감탄이 저절로 나온다. 때로는 험심한 부처님을 뵈고, 때로는 익살스러운 부처님을 뵈 때면 까르르 한바탕 웃기도 하며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대자연과 마주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향한 곳은 기다리던 와불



이 계신 곳이다. 설화 속 개구쟁이 어린 동자 덕분에 여기 계신 와불은 세계 유일한 형태의 와불이 되었다. 좌불 12.7미터, 입상 0.26미터의 대단히 큰 불상이다. 꼭 다문 입, 와선하고 계신 모습이 나뭇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을 준다. 그 옛날 도선 국사는 왜 하룻밤 사이 불사를 마쳐야 했을까? 궁금함도 잠시, 그 덕에 이렇게 멋진 와불을 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산 너머 조금씩 해가 지고 있다. 평화로이 보냈던 오늘 일정을 다시 떠올려 본다.

‘구름이 머무는 곳’ 운주사雲住寺, 오늘 우리가 만난 천불천탑이 계신 곳이다.

『동국여지승람』에 석불, 석탑이 각각 1천구씩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어쩌면 그 설화가 사실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현재 운주사에는 석불 100여구와 석탑 21기밖에

남지 않았다. 비록 모든 기록이 정확하지 않아 언제나 신비함으로 머물고 있지만, 불상과 불탑을 조성할 당시 작가의 수고로움과 운주사가 지나온 역사는 앞으로 살아갈 지친 현대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운주사에 한번 찾아가 볼 일이다. 그야말로 불국토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의 짧은 여정의 끝을 알려주듯 하늘에는 이미 붉은 석양빛으로 가득하다.

그 빛에서 불상의 미소가 비치는 듯하다. 두 손을 모은다. ‘지심귀명례...’ ☺

## 내면의 소리

우보 / 사교과

지금 우리는 인터넷과 통신망이 극도로 발달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소리와 말들로 어지러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는 능변가라야 출세를 하고 유명해지는 세상이 되었고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다’라는 격언은 고전풀이나 사전에나 남아 있는 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능숙한 말을 구사하고 큰소리를 내고 얼마만큼 종횡무진 밀고 나가느냐에 따라, 옹고 그름이 판가름날 만큼 말이란 그 위력이 실로 대단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말할 기회를 얻어 남보다 더 많은 말을 하기를 원하다 보니 이 사회는 조용할 날이 없어졌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는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점심을 끝낸 비구스님들은 잠시 한가한 시간에 말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화제는 주로 출가 전 자신들의 특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코끼리를 잘 다루는 사람, 말(馬)을 잘 타는 사람, 활을 잘 쏘는 사람, 집을 잘 짓는 사람 등이 자기의 장기를 그럴듯하게 부각시켜 언성을 높여가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서로 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남보다 많은 말을 하였으므로, 장내는 몹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홀연히 나타나시어 소란한 까닭을 물었고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 있던 늙은 장로가 자초지종을 아뢰었을 때 부처님의 표정은 엄숙해졌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는 두 가지만 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는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진리에 대하여만 말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침묵을 지킬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을 할 때는 진리에 대하여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침묵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이란 분별심의 끝에서 나온 불완전한 것이므로 자칫 진리를 잘못 전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녕 중요한 것은 말이나 소리가 아닙니다. 또한 진리를 표현할 때는 말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도자들은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란야阿蘭若’를 찾아 숲으로 들어갔던 것이며 그곳에서 조용한 가운데 가장 깊숙한 데서 나직이 들려오는 강물소리와의 같은 ‘내심의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 소리야말로 진정한 우주의 소리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눈을 뜨기가 무섭게 바깥소리에 팔려 삽니다. TV소리, 라디오소리, 말하는 소리, 짓어대는 소리... 요란하게 울려대는 전화벨소리까지. 조용할 날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바깥소리가



멈추게 되면 도리어 초조하고 불안해져서 그 소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말하자면 고요함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갈 길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서는 깊은 자비심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라면 누구나 근기에 따라 이해할 수 있는 원음(圓音)을 설하였고, 나를 조용히 가라앉혀 나를 겸허하게 비울 때 그 원음의 소리는 그대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출가를 해서 은사스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늘 깨어 있어라. 말은 적게 할수록 좋은 것이다. 자신의 소리를 잘 들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소리를 듣다 보니 때론 내가 무엇을 들었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나 소리에 속지 말고 정신 차려 공부하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혹여나 나는 남의 말을 따라 살고 바깥소리만을 좇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듣고자 하는 말만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자비의 원음이, 진리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 그렇다면 한번쯤 나의 삶을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볼 것인가를 이번 한 철 잘 생각하여 다시 한번 진발심을 할 수 있길 발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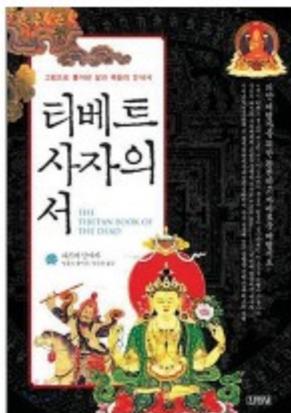
끝으로 부처님의 계송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생사의 거센 흐름을 건너는가.  
무엇으로 바다를 건너며, 무엇으로 고통을 극복하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완전히 맑고 깨끗해질 수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또는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ॐ

# 티베트 사자의 서

동석 / 한문불전대학원 2학년



THE  
TIBETAN BOOK OF  
THE DEAD

“죽음은 삶의 완성이며 죽음을 배워야 삶이 깊어진다”고 한다.

죽음이란 삶의 자연스런 일부므로, 누구나 언젠가 반드시 죽음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죽음을 다루는 방식은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죽음을 무시하거나 자기 자신의 죽음과 정면으로 맞서 죽음에 대해 분명하게 생각함으로써 죽음이 야기할 수 있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 그러나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죽음을 실제로 극복할 수는 없다.

불자로서 죽음이란 삶의 일상적인 전개 과정으로, 지상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직시한다면, 죽음에 대해 걱정할 이유가 사라진다. 죽음이란 궁극적인 종말 같은 것이라기보다 낯아서 헤어졌을 때 갈아입는 옷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죽음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우리는 결코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죽음이 실제로 찾아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만이 현명한 처사이다.

이 책은 죽음과 죽어가는 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죽음과 죽어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실제적인 척도를 제공할 것이며,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이 죽음을 평온하고도 충만하게 준비하도록 도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롭게 죽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폭력으로 가득 차 있거나, 삼독, 집착, 공포 같은 감정으로 마음이 크게 혼란스럽다면, 평화롭게 죽을 수 없음 또한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죽음을 바르게 맞이하고자 한다면 올바르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즉 평화로운 죽음을 희망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자신의 삶 속에서 평화를 일구어야 하는 것이다.

티베트 불교의 위대한 스승, 파드마삼바바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임박해서야 비로소 준비를 시작한다. 죽음이 닥치면 그들은 회한으로 인해 날뛰게 된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지 않았는가?”라고 회상한다. 또한 티베트의 유명한 성자이자 시인인 밀라레파도 “내 종교는 후회 없이 살다가 후회 없이 죽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다.

불교의 목적은 이고득락離苦得樂이며 궁극적으로 佛陀의 완성된 인격자가 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행복에는 2가지가 있다. 일시적 행복과 영원한 행복이 있다. 일시적 행복은 밖에서 들어와 채워져서 행복한 것인데 이것은 욕심에 의해서 바라는 것이다. 영원한 행복은 내 안에 본래 들어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본성이다. 내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싶듯이 상대방도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는 것이다. 즉 불교에서는不二이며, 공자는 恕라고 표현 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나와 상대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며 각자 살아온 業이 다르기 때문이며, 즉 모든 판단 기준은 내가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正見의 전환의식轉換意識이 필요하고 배우며 수행하여야 한다. 싸움과 갈등은 상대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최소한 상대를 이해하고 이해하면 인정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 존중하게 된다.

유학의 가르침도 인간과 인간의 관계이고 곧 인간의 관계가 끝나면 유학은 떠나버린다고 했다. 仁은 완벽한 인격을 갖춘 것을 지향하는 것이 仁이다. 즉 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며 아름답고 행복한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은 무상하고 마음이 의지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깨달음의 세계 말고는 어디에도 의지할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숨을 곳이 없다는 그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리하여 불교를 배워 도를 깨달으려는 수행자들은 반드시 닦아야 할 세 가지 수행체계인 계정해 삼학을 수지하여야 한다. 마치 숲의 세 발처럼 계정해 삼학은 어느 하나를 빠뜨려서는 나머지 다른 것들이 설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이룬다. 계학은 삼학 가운데 가장 앞에 오는 계일 뿐만 아니라 불교를 공부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익혀야 할 배움이다. 계는 수행의 꽃이라고 한다. 삼학은 서로 의존하고 있고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즉 계는 탐심과 진심과 치심에 의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수행의 기본이며,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이다.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드시면서 계에 의지하라고 하셨다.

이와 같이 불교의 가르침이 우리들의 삶과 수행에 바탕이 되고, 우리가 죽음을 제대로 준비한다면 죽음과 삶 모두에 커다란 희망이 있는 것이다. 그런 희망은 바로 지금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다. 죽음을 준비하고 수행을 충실히 닦은 사람에게 죽음은 패배이기보다는 승리이며 삶의 가장 영광스런 성취의 순간이라고 소갈 린포체는 강조한다.

어느 날 죽음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동안 여행은 어땠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더없이 좋았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우울하거나 짜증나거나 힘들 때 어떤 방식으로 마음의 평화를 갖는지,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마음이 번뇌에 물들어 있거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나와 상충한다고 해서 낙담하지 말고, 그들의 부족함은 번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이해심을 갖고 자비롭게 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귀중한 인간의 삶을 사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항상 기억하며 언제나 마음을 수미산처럼 흔들리지 않게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한마디 말과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 행복하기를 기원 드리며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 ☸



## 이고득락 자리이타

수행의 시작은 삶의 괴로움에서부터이다. 삶이 괴롭지 않았다면 우리 출가의 길을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며, 삶의 괴로움을 스스로 자각했기 때문에 보리심을 일으키고 그 괴로움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수행의 길로 들어섰을 것이다. 거기엔 나만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출가사문에 들어온 것 또한 아닐 것이다. 나만의 괴로움뿐만 아닌 타인의 괴로움을 알고 자비를 베풀어 '자리이타'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 수행하는 목적인 것이다.

매일 새벽 4시 도량석이 울리고 수행자들의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

우리가 수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깨닫고 싶어서...

그럼, 깨달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행복하고 싶어서...

그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해탈 열반을 얻어야 한다.

불교는 흔히 깨달음의 종교라고 한다. 무엇을 깨닫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중 한 가지는 행복해지는 방법을 깨닫는 것일 것이다. 이고득락離苦得樂, 즉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것은 모든 종교의 궁극적 목적이기도 하고 무릇 생명을 가진 존재의 공통된 바람이기도 하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행복을 말한다.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길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불교를 믿는 이유일 것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제일 먼저 설한 가르침이 고집멸도苦集滅道 사성제에 대한 가르침이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아셨기 때문에 출가하셨고, 그 괴로움의 실체를 깨달았기 때문에 성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괴로움의 실체를 끊임없이 말씀하셨다. 고는 고통에 대한 자각을, 집은 고통에 대한 원인이 자아에 대한 집착임을 알려주시고, 멸은 고통의 원인인 집착을 제거하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인과법, 고통을 유발하는 조건을 제거하면 고통 또한 사라진다는 인연법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

고, 도는 고통의 원인인 집착과 조건을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 제자들 또한 삶의 괴로움을 자각하고 그 괴로움을 없애고자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괴로움을 유발시키는 것은 끝없는 욕망과 탐욕, 집착이다.

무상한 사물에 대해 상주의 욕구를 가지는 것, 그러한 상주의 욕구를 갖는 것은 중생이 삼독심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한 삼독심은 나를 근원으로 해서 일어나기에 내가 있다는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괴로움을 없애고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상과 무아를 올바르게 체득하여야 한다.

무상하기 때문에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이며,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씨앗이 열매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노력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의 모습에 머물지 않고 해탈하여 열반에 갈 수 있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린 집착이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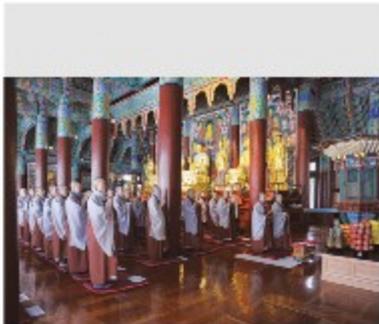
나라는 존재도 마찬가지로이다. 나라라는 존재는 오온에 의해서 합쳐진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라는 걸 경을 통해 우린 배웠다. 무아라고 하여 지금 생각하고 수행하고 기도하고 생활하는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의 내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또 영혼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다. 결국 무이란 변화하지 않는 절대적인 나, 영원히 상주하는 고정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뜻이며 따라서 나에 대해 집착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무상, 무아를 말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 아상에 물든 삶을 일깨우기 위함이며, 관계성의 회복을 위한 것이지, 감성주의에 빠진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무상하고 무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을 없앨 수 있고, 또 매순간 열심히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럴 가나 반드시 싫은 사람 좋은 사람이 꼭 있게 된다. 여기 강원생활도 마찬가지다.

치문의 낫설고 나를 괴롭혔던 마음은 4년이 지난 뒤 실체가 없음을, 그 마음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부처님 경을 통해 배우고 강원생활을 통해 그 괴로움의 실체가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집착에 의해서 나온 걸 알게 되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우린 강원생활을 더 잘 보낼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아함경에 이르기를 "고의 문제가 없었다면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수행의 시작은 삶의 괴로움에서부터이다. 삶이 괴롭지 않았다면 우린 출가의 길을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며, 삶의 괴로움을 스스로 자각했기 때문에 보리심을 일으키고 그 괴로움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수행의 길로 들어섰을 것이다. 거기엔 나만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출가사문에 들어온 것 또한 아닐 것이다. 나만의 괴로움뿐만 아닌 타인의 괴로움을 알고 자비를 베풀어 '자리이타'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 수행하는 목적일 것이다. 卍



▲ 신중기도



▲ 치문반스님 사리암 참배



▲ 사리암 산신님 탕화 점안식



▲ 지비의 이웃돕기 탁발



▲ 처진소나무 막걸리 주기

## 운문소식

- 3월 24일 봄철개학공사 및 신입생 방부(대학원스님 7명, 사미니과 31명)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3월 24일-26일 대중스님들의 무장무예를 발원하는 신중기도가 3일간 대웅보전에서 있었습니다.
- 3월 26일 신중기도 회향 후 산불예방 소금물기를 하였습니다.
- 4월 1일 염불수업을 시작으로 요가 및 서예 외전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고 대구 미래여성아카데미가 주최한 특강 『여성이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하다』는 주제로 일진 강주스님께서 강연해 주셨습니다.
- 4월 2일 치문반스님들이 사리암 참배를 다녀왔습니다.
- 4월 3일 봄철 신입생스님을 위한 생활 안내와 첫 자초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4월 4일 사리암 산신님 탕화 점안식에 주지스님, 강사스님, 대학원스님, 대교반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4월 5일 죽림헌 약사여래불 점안식이 있었습니다.
- 4월 7일 연례행사인 대교반스님들의 탁발이 동곡, 대천, 언양, 부산, 경산, 대구 등지에서 있었습니다.
- 4월 12일 대자원 법회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4월 13일 대중스님들이 봄소풍을 다녀왔습니다.
- 4월 17일 제9회 청도유등제에 어른스님들과 대교반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4월 21일 천연기념물 제180호 처진소나무 막걸리 주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 4월 21일-24일 봉녕사에서 열린 제 23회 석차마나니 수계산림에 갈마위원으로 일진 강주스님께서 참석하시고, 사교반스님 25명이 석차마나니계를 수계하였습니다.
- 4월 24일 청도 바르게살기 공원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맞이 봉축연등 점등식에 주지스님과 대학원생 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4월 25일 문명대 교수님의 '불교미술학개론' 특강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5월 1일 학인스님들의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김광식 교수님의 '운문사와 김사미의 난' 특강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5월 9일 대구 달구벌 관동놀이 연등행렬 행사에 주지스님과 대학원생 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5월 15일 27일간의 봄 방학이 시작됩니다.
- 5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세계간화선 무차대회'에 운문사 대중스님 전원이 다녀 올 예정입니다.

### ※ 여름 소식 안내

7월 24일(금) ~ 7월 26일(일) 36회 어린이여름불교학교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도와주신 분

- 해운 스님
- 규현 스님
- 윤용숙(실상화)
- 주건우
- 이기태
- 정해욱
- 박영훈
- 최희영
- 김경균
- 송경용
- 하병태
- 김호정

###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 即時現今 更無時節

법정 스님이 좋아하셔서 벽에 걸어놓고 글귀를 되새겨  
 썼다는 임제 선사의 어록 중의 한 구절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시절은 없다는 말.  
 한번 지나가버린 과거를 가지고 되씹거나 아직도 오지  
 않은 미래에 기대를 두지 말고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최대한으로 살라는 법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같이 있는 사람,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 濟後 -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학인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풀벌레는 일상생활 속에 있으며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데 있으며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데 있으며  
 달을 서로 주고 받는 데 있으며  
 짓고 유작이는 데 있다.

- 위 쿠노 차임 -

## 雲門僧伽大學

714-881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번지 雲門寺 /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봄호·통권 제132호·2015년 5월 8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명성(전임호)  
 고문·일진 / 편집·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제준 / 편집위원·제준 / 사진·편집부 / 표지사진·제준(법문) / 삽화·진용 / 편집디자인·Design  
 MARU(디자인 마루) (053)426-3395